

# 엄숙하지 않고 편하게 책 읽으며, 대중과 수다 한판



“너무 어렵다 싶을 때 부드러움과 유머를 발휘해  
수위조절을 해드리는 게 제 역할이죠.”

“오늘날 제가 ‘이 얼굴’로 방송을 할 수 있게 된 건 책 덕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난해 ‘책의 날’ 기념식에서 ‘북스타트 운동’ 공로를 인정받은 개그우먼 김미화 씨가 감사패를 수상하며 밝힌 소감이다. 당시 선물 중에서도 책 선물이 가장 좋다고 말했던 그가 이번엔 간접적으로나마 책을 선물하는 역할을 하게 됐다. 소설가 장정일 씨와 함께 KBS-TV의 <TV 책을 말하다> 진행자가 된 것.

“제안이 왔을 때 막 웃었어요. 책 프로그램에서 개그맨이 어떤 기여를 해야 하고 할 수 있는지 고민스러웠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책이란 걸 너무들 현학적이고 부담스럽게 생각하시잖아요. 저처럼 남들에게 웃음을 주는 사람에게 매개자 역할을 주신거구나 생각했습니다. 물론 흔쾌히 승낙했죠.”

글이야 일필휘지로 써내려가는 베테랑이지만 카메라 앞에선 ‘초짜’인 장정일 씨에게 “떨지마세요”란 말부터 해줬다. 그러나 굼직한 방송이력을 지닌 김미화 씨도 어느 정도 부담은 느끼고 있었다. 일단 그날의 주제와 관련된 책 3,4권을 깊이 있게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니 일주일엔 책 서너 권은 꼼꼼히 읽어야 한다. 매니저도 없이 혼자 일주일엔 다섯 개 방송을 준비해야 하는 그로선 녹록찮은 일이다. 그러나 김미화 씨는 “내게도 공부할 기회를 주는 발전적인 일”이라며 이 기회를 감사히 여기고 있다.

진행자 결정 후 시청자들은 반신반의했다. 아나운서, 기자들이 진행자로 나섰던 기존 교양 프로그램과는 달리 개그우먼이 교양 프로그램, 그것도 책 관련 프로그램의 진행자가 된다는 게 영 낯선 일이었다. 다행히 첫방송 이후 시청자 다수가 “흥미롭다”

는 반응이다. 한 시청자는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은 듯 행복한 느낌”이라는 호평까지 보내줘 제작진의 사기를 북돋웠다. 하지만 일각에선 여전히 전문성을 문제 삼는다. 이에 김미화 씨는 “장정일 씨를 비롯해 독서클럽이라는 전문가들이 계시니 나머지 전문가일 필요는 없지 않냐”고 되묻는다. 애초부터 <TV 책을 말하다>가 택한 노선은 무게나 거품을 빼고 편안하고 즐거운 책읽기로 안내하려는 쪽이었다.

“너무 어렵다 싶을 때 부드러움과 유머를 발휘해 수위조절을 해드리는 게 제 역할이죠. 전문가들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만 떠들다가 어떻게 대중에게 다가가겠어요. 물론 전문가들이 나와서 냉철하게 분석할 필요도 있지만 그쪽으로만 무게중심이 가는 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현실문제에 천착하며 지적인 유머를 구사하는 개그맨이 전무한 실정에서 호주제, 독도문제 등 시사적 화제를 꺼낸 김씨의 근래 발언들은 신선한 화제다. 그래서인가. 김씨는 ‘TV, 책을 말하다’를 포함, 2개의 시사 교양 프로그램에서 진행을 맡게 됐다. 방향 선회인가? 그러나 그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며 “시사 개그프로그램을 만들어주신다면 언제든지 해보고 싶다”는 의향을 밝혔다. 또한 지금 맡고 있는 <TV 책을 말하다>에선 책과 독자, 전문가와 일반인들 사이의 가교 역할을 제대로 해주고 싶다는 다짐도 덧붙였다. 매주 목요일 오후 10시, “책이여! 지나친 엄숙주의를 벗고 대중과 수다 한판 떨어봅시다”라며 개그만큼 즐거운 책마당을 펼쳐보겠다는 의지다. **☞**

취재 김철연기자 | 사진 박신우기자